

2시간 넘는 PT끝 구형...피고인들 고개 떨구고 유족들은 항의

〈프레젠테이션〉

세월호 1심 결심공판 열린 광주지법 표정

피고인 대부분 “죽을 죄를 지었다” 최후 진술 안산에선 유족 19명 스크린 통해 재판 지켜봐

“세월호 총책임자로서 사고 원인을 제공하는 등 무거운 책임이 있습니다. 승객들이 다 내릴때까지 선박을 떠나면 안된다는 선원법에 명시된 의무를 어겼고 선내 대기 방송 후 아무런 구조조치나 피해를 완화할 노력, 퇴선 후 구조활동 등도 전혀 없었습니다. 피해자가 304명에 달하고 우리 사회에 큰 상처를 준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피고인 이준석 선장에게 사형을 선고하여 주십시오.”

27일 오후 4시 13분, 세월호 승무원들에 대한 결심공판이 열린 광주지법 201호 대법정. 지난 6월 10일 첫 재판에 들어간 뒤 다섯달 가까이 끝어온 재판에 대한 검찰의 구형이 시작됐다. 이날 오후 1시30분부터 시작된 결심 공판에서 2시간 넘게 진행된 PT(프레젠테이션)가 마무리되면서다.

재판은 시작 전부터 주법정 103석이 가득 찼고 실시간 음성과 영상이 전달되는 열 보조 법정에서도 유가족 등이 재판을 방청했다. 재판이 생중계되는 수원지법 안산지원의 법정에도 유가족 19명이 찾아 스크린을 통해 재판을 지켜봤다.

검찰은 이날 구형에 앞서 PT를 통해 사건 의미를 설명하고 승객 구조 의무를 저버린 승무원들의 무책임함을 드러내보여 중형 선고의 타당성을 강조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박재익 강력부 부장검사는 노란 리본과 야

색 생사조차 모르는 실종자의 숫자를 뜻하는 10이라는 숫자가 적힌 시청각 자료에 맞춰 “돌아오지 못한 실종자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의견을 개진하겠다”며 시작했다.

박 부장검사는 “4월 16일은 안전국치일로 역사상 가장 부끄러운 기억이 됐고 사고 이전과 이후 대한민국이 달라져야 한다는 화두를 던졌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검찰은 이날 박 부장검사의 논고문을 통해 세월호 침몰 사건이 우리 사회 깊숙이 뿌린 내린 안전불감증, 책임과 의무를 저버린 사회적 적폐를 고스란히 드러낸 사건으로 규정했다. 원칙을 지키지 않고 책임과 의무를 저버린 어른들로 인해 한창 단풍과 낙엽을 보며 즐거워할 어린 학생들의 희생으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여기에 상응하는 형사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검찰의 의지는 구형량에 그대로 반영됐다.

2시간 넘게 이뤄진 PT 끝에 사건 주임검사인 박재익 부장검사가 이 선장에게 사형을, 강모(42) 1등 항해사, 김모(46) 2등 항해사, 박모(53)기관장 등 3명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하는 등 15명 피고인들의 형량을 차례로 구형하면서 법정 안은 정적에 휩싸였다. 당사자인 이 선장은 아무런 움직임 없이 자신의 앞에 설치된 모니터만 뚫어져라 응시했다. 나머지 피고인들은 중형 구형이 떨어지자 고개를 약간 숙인 채 눈을 감았고 자신의 형량을 들은 뒤 울기도 했다.



검찰이 세월호 참사와 관련 살인죄로 기소된 4명 중 이준석 선장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27일 오후 광주지법에서 재판이 끝난 후 유가족들이 침묵한 표정으로 안산행 버스에 앉아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법정의 고요함은 오래 가지 않았다. 박 부장검사가 6분여에 걸쳐 피고인들의 구형량 낭독을 끝내자 방청석을 지켰던 유가족들 사이에서 불만 섞인 탄식이 뒤섞여 흘러나왔다.

재판장이 변호인 최후 변론과 피고인 최후 진술에 앞서 20분간 휴정하자 법정안이 일순 소란스러워졌다. “무기징역도 아깝다 죽어 마땅한 사람입니다”라는 항의성 목소리가 터져나왔고 일부 유가족들은 법정 밖에서도 실망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휴정 뒤 재개된 재판은 변호인들의 최후 변론과 피고인들의 법정 최후 진술로 마무리됐다. 피고인들 변호를 맡은 변호사들은 상당수가 법리적 쟁점은 서면으로 제출하는 한편, 피고인들의 합당한 처벌을 주문했고 이어 이뤄진 최후 진술에서 피고인들은 대부분 “무능했다. 죽을 죄를 지었다. 잘못했다”며 피해자와 유가족들에게 사죄했다. 일부 피고인들은 최후 진술 도중 눈물을 흘리면서 중간에 끊었다가 이어가기도 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

실종자 가족들 수중수색 지속 결정 민간수색업체 철수 여부 놓고 내홍

세월호 실종자가족이 선제 인양 거부 입장을 밝힌 가운데 민간 수중수색 담당업체가 잠수사 철수 여부를 놓고 내홍을 겪고 있어 실종자 수색작업에 난항이 예상된다.

실종자가족 대책위 법률대리인 배의철 변호사는 27일 오후 2시 진도군청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9가족이 수색지속·인양 여부에 대한 투표 결과 현재의 수중수색을 지속하는 것으로 결론이 내려졌다”고 발표했다. 지난 26일 오후 7시부터 진도체육관과 팽목항에 있는 7가족은 무기명 투표를 했다. 서울 등지에 있는 2가족은 전화를 통해 의사를 전했다. 투표 결과 수중수색 의견 5가족, 인양 의견 4가족으로 의견결정속 3분의 2를 채우지 못해 인양 안건은 부결됐다.

배 변호사는 “해양수산부에 인양 계획에 대한 자료를 요청한 상태로 모든 가능

성을 열고 검토할 것”이라며 “이주영 해수부 장관에 책임 있는 수색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고 말했다.

한편, 기상여건, 안전문제, 실종자 존재 가능성을 두고 민간 수중수색 업체 88수중(주) 소속 잠수사와 운영진 사이에 수색지속 여부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정호원 88수중 부사장은 “동절기가 다가오고 기상여건이 자주 좋지 않지만 수중수색 기한을 두고 있지는 않다”고 수색 중단 우려를 일축했다. 정씨는 법정부사고 대책본부의 수색작업에 충실히 따르겠다고 덧붙였다.

88수중 소속 바지선(500t급)은 지난 26일 오후 5시 물결 3m의 풍랑주의보가 내려져 피항했으며 28일 사고 현장에 복귀할 예정이다. /백희준기자 bhj@

값비싼 교훈 물거품 안되도록 안전불감증에 경종

재판 구형 배경과 전망

살인죄 적용 의견 엇갈려

내달 11일 1심 선고 관심

논고는 단호했고 구형은 예상대로 무거웠다. 검찰은 논고문을 통해 “세월호 참사로 얻은 값비싼 교훈이 물거품이 되지 않도록 경종을 울려달라”고 재판부에 주문했다.

◇구형 배경=검찰은 우리 사회 깊숙이 뿌리박힌 안전 불감증의 구조를 끊어야 한다는, 침몰 참사의 진상과 원인을 과학적으로 규명, 책임을 가려내고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을 해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여론을 감안, 이준석 선장에게는 사형을 구형하고 나머지

피고인들에게도 징역 15년~30년, 무기징역의 높은 형을 매겼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지난 재판을 통해 쟁점으로 떠올랐던 이 선장 등 퇴선 조치 지시 여부와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하면 수난구조법 위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의 혐의 적용이 어렵다는 취지의 피고인들 주장을 반박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검찰은 이 선장이 수사 과정에서 수 차례 배운 진술을 내세워 “승객 퇴선 명령을 했다”는 이 선장 등 주장의 허구성을 부각하는가 하면, 다른 선원들과 배치되는 진술 등을 들어 각 피고인들이 잘못을 숨기거나 변명에 급급하고 있다는 점도 드러냈다. 이 선장을 비롯, 승무원들의 사고 당시 운항상 의무 위반, 업무상 과실, 미흡한 승객 구조 조치 등을 지적하면서 무능했을 뿐 고의가 아니었다는 피고인들의 주장도 반박하고 나섰다. 제 살길을 찾기 위해 동

료나 승객들의 안전을 저버렸다는 점을 부각시키기도 했다.

기관장 박모씨에 대한 살인죄 적용 배경과 남은 갑판부 승무원 3명, 기관부 승무원 6명에게 적용된 유기치사·상 혐의, 당직 항해·조타수 2명을 뺀 승무원 전원(13명)에게 적용된 수난구조법 위반 혐의, 당직 항해·조타수에게 적용된 특정범죄가중처벌법(도주선박의 선장 또는 승무원에 대한 가중처벌) 위반 혐의 등에 대한 설명도 덧붙였다.

◇남은 일정은 =1심 재판이 이날 구형까지 이뤄짐에 따라 세월호 승무원들의 재판도 마무리를 눈앞에 두고 있다. 앞으로 남은 재판일정은 다음달 11일로 예정된 1심 선고와 재판결과에 불복할 경우의 2~3심이다.

가장 관심이 모아지는 부분은 선고형량. 현재로서는 담당 재판부를 제외한 누구

도 이들의 선고량을 정확히 추정할 수 없다.

이 선장만 사형이 구형됐지만 살인죄를 적용할 지 여부는 재판부의 판단이다. 여전히 법조계에서는 살인죄 적용에 대한 의견이 엇갈린다. 적절한 형량인지 여부에 대해서도 의견이 다양해 검찰 구형대로 선고가 이뤄질 지는 미지수다.

상당수 피고인들은 구조조치가 미흡했다거나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한 사고에서 먼저 구조되었다는 점에 대한 비난은 감수하지만 본인들도 사고로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퇴선 당시 이미 배가 상당히 기울어 더 이상 배안에서의 구조조치는 불가능하였으므로 살인이나 도주 등의 의사는 없었다는 주장을 여전히 유전하고 있다.

“그럴만한 위치에 있지 않다”, “나름의 구조조치를 했다”, “과실 이상의 이상의 형사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 “법리 측면에 문제가 없는지 살펴 달라”는 피고인들의 주장을 재판부가 어떻게 받아들일지 선고 결과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은혜 베풀 목사에 술 안마셔 준다며 협박한 동네조폭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 목사가 함께 술을 마시지 않는다는 이유로 협박한 40대 동네 조폭이 또다시 철창행. ○~27일 광주동부경찰에 따르면 황모(47·전과 30범)씨는 지난 19일 오전 9시30분께 광주시 동구 충장로 A교회 정문에서 목사 김모(여·60)씨에게 “징역갔다 왔으니, 건들지 마라”며 협박하며 행패를 부렸

다는 것. ○~지난 4월 폭행치사죄로 만기 출소한 황씨는 최근 김 목사의 도움을 받아 주거지를 마련하는 등 많은 도움을 받았으나 김씨가 함께 술을 마시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같은 짓을 저질렀는데, 경찰은 “황씨가 김씨뿐만 아니라 인근 상가 주인 9명에게도 못된 짓을 저질러 구속했다”고 설명. /백희준기자 bhj@

“수기동 제일아 매매”

- 29평 - 12층, 전체 올수리, 주거겸 사무실
매매가 7200만원
- 77평 - 20층, 전체 올수리, 사무실 전용
매매가 2억 7000만원
- 주인직매 : 010-3605-5000

“월산동 근린주택”

- 수리중입니다.
- 싸게 사서 싸게 팔 생각입니다.
- 곧 공개합니다.